

누가 행복한 직장인인가?: 인구통계적·심리분석적 요인과 행복수준 간의 관계

이 종 만*

Who is Happy at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Psychographic Factors and Happiness Level

Jong Man Lee *

요 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누가 행복한 직장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자녀수, 종교, 학력, 직급,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 외향성, 신경증적 예민함, 긍정신념과 같은 심리분석적 요인 그리고 행복 수준으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제안하였고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인구통계적 요인과 심리분석적 요인 모두 직장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자녀수, 신경증적 예민함, 긍정신념은 직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직장인의 행복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Keywords : 행복, 인구통계적 요인, 심리분석적 요인, 신경증적 예민함, 긍정신념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who is happier in workplace. To do this, this study proposed and analyzed a theoretical model consisting of demographic factors such as sex differences, age band, marital status, child quantity, religion, education level, position, job, income etc,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extroversion, neurosis, positive belief and happiness level. The major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first, both demograph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level of office-worker. Second, child quantity, neurosis and positive belief is an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office-worker's happiness. In conclusion, the

•제1저자 : 이종만 •교신저자 : 이종만

•투고일 : 2013. 10. 30. 심사일 : 2013. 11. 18. 게재확정일 : 2013. 11. 27.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과(Dept. of e-Business, Dongyang Mirae University)

implication of our research is to verify factors to promote the happiness level of office workers.

▶ Keywords : Happiness, Demographic Factors, Psychographic Factors, Neurosis, Positive Belief

I. 서론

직장인들이 ‘행복한 직장인은 누구인가?’ ‘행복한 직장인은 어떤 조건이나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실제 현실은 직장인들의 바람과는 사뭇 다르다. 2013년 6월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1), 직장인들 사이에서 무한경쟁 속에 일에 치이면서 생활리듬이 깨지며 생기는 만성피로증후군(75.5%)이라는 이상증상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현재 직장에서 보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는 파랑새증후군(60.7%)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3),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 수준은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점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행복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은 행복을 용이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거나(4),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연구(5)를 주로 수행하여왔다. 그 결과,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과학적 개념화 연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행복을 인구통계적 요인이나 개인의 심리분석적 요인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일반화된 행복 모형이 도

출되긴 하였지만, 이것은 직장인과 같은 특정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행복 조건이나 독특한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는 직장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행복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선행 연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직장인의 행복 유발 조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어떤 특징을 지닌 직장인이 행복한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기존의 행복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이 느끼는 행복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인구통계적 요인과 심리분석적 요인을 기준으로 행복수준을 분석하여 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관한 주요 연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1967년에 발표된 윌슨(W. Wilson)의 연구(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6). 그는 다양한

표 1. 행복 관련 주요 연구 결과
Table 1. Key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Happiness

연구자 (연도)	인구통계적 요인							심리분석적 요인			행복수준		
	성별	연령	결혼	종교	학력	직업	소득	외향성	신경증	긍정 신념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윌슨(W. Wilson) (1967)		○	○	○	○		○	○	○		○	○	○
디너(E. Diener) 외 3인 (1999)	○	○	○	○	○		○	○	○		○	○	○
구재선과 서은국 (2011)	○	○	○	○	○	○	○	○	○		○	○	○

요인들과 행복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젊음, 건강,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소득수준, 외향성, 낙천성, 근심 없음, 종교, 자기 존중감을 가진 기혼자, 높은 직무 사기 등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윌슨의 주장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디너(E. Diener) 교수 외 3인에 의해서 재검증되었다(7). 그들은 ① 생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삶의 만족, ② 긍정적 정서 경험이나 각성 정도를 뜻하는 긍정 정서, ③ 부정적 정서 경험내지 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 정서와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8) 개념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들이 행복 영향요인들을 실증한 결과는 첫째, 기혼자, 종교가 있는 사람들, 외향적이거나 낙관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성별, 연령, 자기존중감 등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도 디너 교수 연구팀에서 활동했던 서은국 교수팀이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서은국과 구재선은 주관적 웰빙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검증하였다(4). 그리고 구재선과 서은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점수를 연령, 성별, 결혼여부, 종교유무, 학력수준, 직업유형,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과 성격, 행복관으로 구성된 심리분석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외적 상황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수준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사교성의 강도와 사회적 폭에 있어 개인의 외부 지향적 성격 정도를 의미하는 외향성, 개인의 내적 심리적 갈등이나 외적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정도를 의미하는 신경증 등 개인의 성격 요인과 행복에 대한 긍정적 신념 같은 심리분석적 요인들은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 대상 범위를 직장인으로 한정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9), 보안요원(10), 시민단체 활동가(11) 등과 같이 특정 직업만을 대상으로 삼았거나 여성(12) 등 일부 세분 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일반적인 행복 영향요인이 직장인 그룹에서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3)(13).

III.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히, 구재선과 서은국의 연구에서 채택되었던 외적 인구통계적 요인 및 내적 심리분석적 요인과 행복수준 간의 관계 모형을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 수준 및 그 영향 요인들을 밝히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구통계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수, 종교유무, 학력, 직급, 직업, 가정 월소득, 거주지 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심리분석적 요인은 외향성, 신경증적 예민함, 긍정 신념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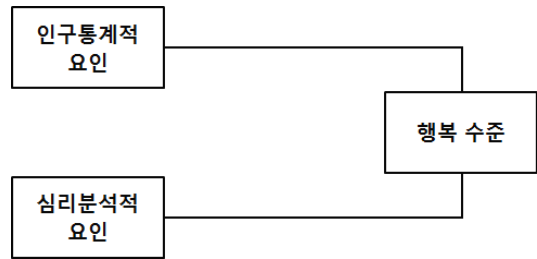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먼저 주요 인구통계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하지만 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여성 직장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근로 환경(14)에서는 성별에 따라 행복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소득 수준과 행복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가정의 월소득이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녀수와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2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자녀가 없거나 1명 또는 3명일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느끼고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에 본 연구는 자녀수가 직장인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분석적 요인과 행복 수준 간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외향성, 신경증적 예민함, 행복에 대한 긍정 신념이 일관되게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5). 따라서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에서도 외향성, 신경증적 예민함, 긍정 신념과 같은 개인의 내적 심리분석적 요인들은 직장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판단된다.

IV. 연구 방법

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연구변수를 바탕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2. 연구변수의 정의
Table 2. Definitions for Research Variables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설문항목
심리분석적 요인	외향성 사교성의 강도와 사회적 폭에 있어 직장인의 외부 지향적 성격 정도 1. 나는 외향적이다. 2. 나는 열정적이다.
	신경증적 예민함 직장인의 내적 심리적 갈등이나 외적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정도 1. 나는 대체로 불안하다. 2.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하는 편이다.
	긍정 신념 직장인의 긍정적 신념 정도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3. 내 삶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생각한다.
행복수준	삶의 만족 개인, 대인관계, 소속 집단에서 느끼는 직장인의 생활 만족 정도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속한 직장에 대하여 만족한다.
	긍정 정서 직장인의 긍정적 정서 경험/각성 정도 1.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즐거웠다. 2.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행복했다. 3.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편안했다.
	부정 정서 직장인의 부정적 정서 경험/각성 정도 1.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짜증났다. 2.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3. 나는 직장에서 대체로 무기력했다.

여기서 행복수준은 서은국과 구재선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6문항 합에서 부정 정서 3문항 합을 뺀 점수로 산출된다[4].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한 자료는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89부이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3. 표본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Sample

성별	빈도	비율	학력	빈도	비율
남성	61	68.5	전졸 이하	17	19.1
여성	28	31.5	대졸	53	59.6
			대학원졸	19	21.3
합계	89	100.0	합계	89	100.0

연령대	빈도	비율	직급	빈도	비율
20대	40	44.9	사원	44	49.4
30대	23	25.8	대리	12	13.5
40대	24	27.0	과장	12	13.5
50대	2	2.3	차/부장	12	13.5
			임원/대표	9	10.1
합계	89	100.0	합계	89	100.0

결혼여부	빈도	비율	직업	빈도	비율
미혼	51	57.3	제조업	20	22.5
기혼	38	42.7	정보통신업	40	44.9
			정부/공공기관	12	13.5
			서비스업	17	19.1
합계	89	100.0	합계	89	100.0

자녀수	빈도	비율	가정 월소득	빈도	비율
0명	55	61.8	200만원 이하	10	11.2
1명	7	7.9	200-300만원	14	15.7
2명	24	27.0	300-400만원	20	22.5
3명이상	3	3.3	400-500만원	15	16.9
			500-600만원	6	6.7
			600만원 이상	24	27.0
합계	89	100.0	합계	89	100.0

종교유무	빈도	비율	거주지	빈도	비율
종교 있음	57	64.0	서울	44	49.4
종교 없음	32	36.0	경기	23	25.9
			충청	22	24.7
합계	89	100.0	합계	89	100.0

V. 분석 결과

1. 독립된 그룹의 크기 비교

본 연구는 독립된 그룹의 크기 비교를 위해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룹 비교를 위해서 먼저 표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16]. 이후 정규분포인 경우는 모수적 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정규분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비모수적 방법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16].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콜모고로프-스미노프(Kolmogorov-Smirnov) 검정(K-S 검정)과 샤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S-W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4.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 검사 결과
Table 4. Result of Normality Test

그룹	K-S 검정			S-W 검정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남성	0.079	61	0.200	0.977	61	0.306
여성	0.119	28	0.200	0.972	28	0.635
20대	0.100	40	0.200	0.979	40	0.636
30대	0.118	23	0.200	0.978	23	0.873
40대 이상	0.169	26	0.054	0.922	26	0.050
미혼	0.076	51	0.200	0.988	51	0.879
기혼	0.092	38	0.200	0.980	38	0.721
0명	0.066	55	0.200	0.990	55	0.938
1명	0.275	7	0.117	0.927	7	0.522
2명	0.165	24	0.089	0.950	24	0.277
3명이상	0.191	3	0.997	0.997	3	0.900
종교 있음	0.065	57	0.200	0.987	57	0.804
종교 없음	0.078	32	0.200	0.978	32	0.728
전졸 이하	0.212	17	0.041	0.943	17	0.362
대졸	0.085	53	0.200	0.986	53	0.779
대학원졸	0.274	19	0.001	0.827	19	0.003
사원	0.100	44	0.200	0.979	44	0.595
대리	0.205	12	0.174	0.944	12	0.556
과장	0.195	12	0.200	0.949	12	0.620
차/부장	0.132	12	0.200	0.980	12	0.983
임원/대표	0.283	9	0.037	0.706	9	0.002
제조	0.106	20	0.200	0.986	20	0.987
정보통신	0.071	40	0.200	0.977	40	0.585
정부/공공	0.235	12	0.065	0.868	12	0.062
서비스	0.160	17	0.200	0.974	17	0.880
200이상	0.232	10	0.137	0.898	10	0.209
200-300	0.154	14	0.200	0.925	14	0.260
300-400	0.111	20	0.200	0.968	20	0.717
400-500	0.146	15	0.200	0.942	15	0.411
500-600	0.216	6	0.200	0.868	6	0.218
600이상	0.130	24	0.200	0.937	24	0.142
서울	0.071	44	0.200	0.987	44	0.787
경기	0.119	23	0.200	0.976	23	0.834
충청	0.142	22	0.200	0.968	22	0.673

둘째, 정규분포 여부 검정 결과 각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성별, 결혼여부, 자녀수, 종교 여부, 직업, 가정 월소득, 거주지 특성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one way ANOVA

그룹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검정 통계량	유의 확률
성별	집단-간	1906.761	1	1906.761	19.789	0.000
	집단-내	8382.744	87	96.353		
	합계	10289.506	88			
결혼 여부	집단-간	1665.892	1	1665.892	16.806	0.000
	집단-내	8623.615	87	99.122		
	합계	10289.506	88			
자녀 수	집단-간	1992.157	3	664.052	6.803	0.000
	집단-내	8297.349	85	97.616		
	합계	10289.506	88			
종교 유무	집단-간	52.523	1	52.523	0.446	0.506
	집단-내	10236.982	87	117.666		
	합계	10289.506	88			
직업	집단-간	1074.688	3	358.229	3.304	0.024
	집단-내	9214.818	85	108.410		
	합계	10289.506	88			
가정 월소득	집단-간	1691.907	5	338.381	3.267	0.010
	집단-내	8597.599	83	103.586		
	합계	10289.506	88			
거주지	집단-간	0.451	2	0.226	0.002	0.998
	집단-내	10289.054	86	119.640		
	합계	10289.506	88			

셋째, 정규분포 여부 검정 결과 모든 그룹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대, 학력, 직업 특성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방법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후에 맨-휘트니(Mann-Whitney) 검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행복수준의 차이 분석

본 그룹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학력, 직업유형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에 따라 행복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직장인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성별을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여성 직장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여부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미혼 직장인 그룹과 기혼 직장인 그룹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혼여부를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혼 직장인이 미혼 직장인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수에 따라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무자녀 직장인 그룹, 1명, 2명, 3명 이상 직장인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0명, 1명, 2명, 3명 이상 자녀수를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자녀수에 따라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다중비교 결과, 2명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무자녀 직장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교유무에 따라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분석에서는 종교가 없는 직장인 그룹과 종교가 있는 직장인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종교유무를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종교유무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직장의 유형)에 따라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 정보통신업 종사자, 정부/공공기관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 직업을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유형에 따라 행복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다중비교 결과, 정부/공공기관 재직자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 ~ 300만원 미만, 300 ~ 400만원 미만, 400 ~ 500만원 미만, 500 ~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정의 월소득을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행복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다중비교 결과, 가정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200만원 미만인 직장인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난은 불행을 만들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드 디너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적어도 돈이 행복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거주지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 거주 직장인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주지를 독립요인으로 행복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거주 지역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연봉 직장인이 2012년 국제청 신고 소득 기준으로 수도권에 68.8%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충청에는 1%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을 해석된다.

여덟째, 연령대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20대, 30대, 40대 이상 그룹 모두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서 비모수적 방법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그룹의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사후 검정 맨-휘트니(Mann-Whitney) 검정 결과 30대 직장인과 40대 이상 직장인의 행복수준이 20대 직장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학력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전문대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이상 그룹 모두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실시한 바, 세 그룹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급에 따른 직장인의 행복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차/부장, 임원/대표 그룹 모두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모수적 방법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실시하여 다섯 그룹의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맨-휘트니 사후 검정에서는 사원의 행복수준이 차/부장 및 임원/대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적 요인의 행복수준에 대한 설명력 분석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요인들로 구성된 1단계 모형의 직장인 행복수준 설명력과 심리분석적 요인들이 추가된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5][16].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된 성별, 결혼여부, 자녀수, 직업, 가정 월소득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이 독립요인으로 투입된 1단계 모형에서는 28.1%의 설명력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6.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구분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베타	t	유의확률	베타	t	유의확률
성별	-7.692	-3.464	0.001	-2.961	-1.456	0.149
결혼여부	0.101	0.567	0.572	0.109	0.714	0.477
자녀수	3.600	3.391	0.001	3.140	3.425	0.001
직업	-0.016	-0.169	0.866	0.029	0.353	0.725
가정 월소득	0.184	1.904	0.060	0.062	0.689	0.076
외향성				0.424	0.443	0.659
신경증적 예민함				-2.763	-3.560	0.001
긍정신념				2.636	2.341	0.022
설명력	$R^2=0.281, \Delta R^2=0.281$			$R^2=0.505, \Delta R^2=0.224$		

을 보였으며, 성별, 자녀수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분석적 요인들(외향성, 신경증적 예민함, 행복에 대한 긍정신념)이 추가로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22.4% 증가된 50.5%로 나타났다. 직장인 행복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인구통계적 요인 중에서는 직장인 행복수준에 대한 성별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수의 설명력도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에 심리분석적 요인 중 신경증적 예민함과 행복에 대한 긍정신념의 설명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직장인의 행복수준에 심리분석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한 직장인들의 특성치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 유발 조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통계적 요인 및 심리분석적 요인이 행복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 결과, 심리분석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상황적 요인도 직장인들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제선과 서은국의 기존 연구 결과(5)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직장인과 같은 특정한 그룹의 행복 조건은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신

경증적 예민함, 긍정신념과 같은 심리분석적 요인들은 직장인 그룹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무자녀 직장인보다 더 행복하고, 기혼 직장인이 미혼 직장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여성 직장인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 출산 장려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조직 차원의 실제적인 동의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정부/공공기관 직장인이 서비스업 직장인보다 더 행복하고, 30대나 40대 직장인이 20대 직장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성세대와 달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변환된 가치관도 영향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생활에서 두꺼운 유리천장을 느끼고 있는 여성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직 관리자가 여성 직장인에 대한 질차적 공정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200만원 미만인 직장인보다 더 행복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돈이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 직장인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행복한 직장인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긴 하였지만, 본 연구의 흥미로운 실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업무에 대한 동기나 의미감 등과 같은 직장인 그룹만의 고유한 특성치[5]를 좀 더 고려해 본다면, 직장인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직장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약 후속 연구에서 설문 조사 대상을 해외 직장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비교 분석을 통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Asia News Agency, <http://www.anews.com>
 [2] YTN, <http://www.ytn.co.kr>
 [3] Ye, J., Jin, H., Seo, Y. J., Kim, M. J., and Ryu, J. S., "A Study on Worker Happiness," SERI Report, pp.1-95, 2013.
 [4] Suh, E. M. and Koo, J.,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1, pp.95-113, 2011.
 [5] Koo, J. and Suh, E. M.,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2, pp.143-166, 2011.
 [6] Wilson, W.,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67, No.4, pp.294-306, 1967.
 [7] Diener, E., Suh, E. M., Lucas, R. E., and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2, pp.276-302, 1999.
 [8]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9] Lee, J. H., "The Relationship of Teacher's Burnout and Subjective Well-Being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Vol.27, No.3, pp.143-164, 2010.
 [10] Kim, G. S. and Kim, S. J.,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Private Security Guard,"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9, No.10, pp.305-313, 2009.
 [11] Park, J. W.,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GO Activist and Self-Esteem, Meaning of Life, Mental Health," Sogang University, 2008.
 [12] Lee, S. J. and Oh, J. R., "The Relations among Women 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Organization Effectiveness, Workplace and Family Conflic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49, No.1, pp.7-40, 2010.
 [13] Lee, S.-K. and Kang, H.-M.,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Subjective Well - Being of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Vol.7, pp.65-76, 1997.
 [14] NewsPIM, <http://www.newspim.com>
 [15] KoreaMedicare, <http://www.kormedi.com>
 [16] Bae, J. M., "An Illustrated Guide to Medical Statistics using SPSS," Hannarae Publishing Co., 2012.

저 자 소 개



이 종 만

1997: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공학석사.
 2007: 서강대학교
 경영학과(MIS) 경영학박사
 현 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컴퓨터활용
 Email : jmlee@dongyang.ac.kr